



사순절 묵상집 2013



보스톤 한인 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권두언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75)

언젠가 설교시간에 들려 드린 말씀입니다. 안토니 드 멜로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주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주님께 간구를 한다. 대화를 한다. 찬양을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언제나 나는 좀 불편한 느낌을 갖는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눈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자꾸 피하고 싶어한다. 나는 주님께 대화를 한다. 그러나 나의 눈은 주님을 피하려고 한다. 주님의 따스한 눈길을 느끼면서도... 나는 언제나 다른 데를 바라본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나에게서는 두려움이 있다. 나는 나의 회개 안된 죄가 발견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까 두렵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바라보았다. 그런데 전혀 책망의 눈길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런 힘겨운 요구도 느낄 수 없었다. 주님의 눈길은 단순히 말하고 있었다. ‘널 사랑한다(I love you).’ 나는 주님의 눈길을 오래 바라보았다.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래도 끝까지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널 사랑한다(I love you).’ 나는 밖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울었다.”

그 동안 사순절 기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베드로의 눈물을 소유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 해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홍보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이영길 목사



믿음과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 장은 아벨로부터 초기 기독교의 박해 받는 순교자들까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되고 있는데,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등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너무나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견고한 성체와도 같아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며 교회에서의 찬양이나 예배에서 받은 영적 충만함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조하며 더욱더 믿음 속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쉽게 달아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 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또한 인격적이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함께 고통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C 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더 나은 점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 타락하거나, 타락한 세상과 떨어져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 그 자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고 말하는데 이는 영적 성숙의 증거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고 완전한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러한 인식만이 은혜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낮은 자, 자기를 비우는 자들에게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 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지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이기는 자가 성공한 것이라는 세상의 생각과는 달리, 겸손과 회개, 그리고 비우고 낮아지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단 한번 만의 결단과 한번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차게 부는 바람으로 가지가 흔들릴 때, 그 뿌리는 더 깊고 넓게 땅을 움켜지게 되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통곡이 터져 나올 때 그제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과 통곡이라는 천 번의 아픔 속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들도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미래를 보며, 서로를 안아주고 기도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에도, 살랑거리는 봄바람에도, 그리고 요즘 같은 혹한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느끼며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나타내야 할 감사의 흔적이며, 교회는 그 감사함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는 실습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복태 장로

기도: 주님, 보스턴 한인교회의 각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지체가 말씀으로
우뚝 서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21)

최근 개봉한 영화 Les Miserables를 보았습니다. 굶주린 어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던 장발장은 19년 동안 처참한 수형 생활을 하고 가석방이 됩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장발장은 어디서도 환영 받지 못하다가 한 성당에서 만난 미리엘 주교와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치료받고 웅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다음 날 성당의 귀중품들을 훔쳐 도망치던 장발장은 경찰들에게 곧 체포되어 교회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때 미리엘 주교는 모든 물건들을 자신이 직접 장발장에게 주었다고 변호해 주고 은 쫓대 두 개를 더 챙겨 줍니다. 이 사건은 장발장의 인생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성실한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자신을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을 피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현장에서 장발장은 포로로 잡힌 자베르와 마주치게 되고 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등등 나의 마음을 무겁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리거나 혹은 마음 속으로 그를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었지만 장발장은 자베르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베르는 자신의 신념과 장발장이 보여 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다 자살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변민하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12장19-20절)” 사순절을 통해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는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려움과 아픔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성연 집사

기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빵 장수를 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키워 주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청년기를 지나면서 파바로티의 관심은 교육에 쏠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다. 졸업 때가 가까워지자 파바로티는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성악과 교육학을 동시에 붙잡고 싶었다. 그때 아버지가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의자 두 개를 멀리 떨어 놓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으려면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너 자신이 해야 한다.”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두 개의 의자 위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심사 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선택을 잘 한 경우에 속한다.

마리아와 정혼하고 순결 의무를 지키고 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로 데려와야 할지 갈등했다. 그러나 신실한 요셉은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꿇고자” (마태복음1:19) 했다. 만약 소문내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태복음1:20)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 신앙 또한 선택이다. 주일만 지키는 선데이 크리스천인가 주중에도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 갈 것인가.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그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이다. 때로는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결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김용희 집사

기도: 주님,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이 되지 않게 인도해주세요 아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25)

우리 집에는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주체하지 못하는 두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세 살 반이 넘는 첫째 녀석은 하루 종일 엄마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해댑니다. 16개월 된 둘째 녀석은 가야 할 곳, 가면 안될 곳, 입에 넣어야 할 것, 넣으면 안 되는 것 등등을 구별하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두 아들을 쫓아 다니다 보면 저녁나절에는 녹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이들이 어서 크기를, 혼자서 앞가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기도제목 중 가장 큰 기도제목은 자연히 ‘육아’에 대한 제목들입니다. 아이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이 몇 년 째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요.

작년에 부부 청년부에서 성경통독 모임을 하며 일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였는데, 통독을 마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10절 말씀인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구절입니다. 일상에 쫓기다 보니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은 둘째치고, 성령이 과연 내 안에 계신가조차 의문이 들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매 순간 소멸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아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조금씩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신민영 집사

기도: 주님, 삶의 매 순간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빛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이까” (창세기 18:25)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배를 드립니다. 올 해 사순절을 통하여 잃어버린 향기와 빛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여야하는 빛과 향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빛과 향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잘 아시다시피 소돔성은 십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괜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씨름한 것일까요? 꿀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것 입니다. 꿀을 얻지 못하면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헛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못 다이룬 자신의 소원이었지만 이 대화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빛과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코가 석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눈으로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1년을 기다려야지만 눈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기간만 받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곧바로 소돔성에 멸망당하는 자들의 모습에 골몰합니다. 하나님과 힘든 바겐을 해서 의인 열 명만 있으면 모든 자들이 살 수 있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애석하게도 열 명이 없어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인생을 사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빛과 향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꿀만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빛과 향기도 얻은 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향기는 꿀을 채취하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 오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패한 것 처럼 보일 때 그 때 바로 빛과 향기가 발해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 자신이 어느새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생은 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웃을 사랑하다가 실패케 하신 것입니다. 그 때야 비로서 빛과 향기를 소유한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꿀도 빛도 향기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사랑의 실패는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 갔습니다. 그 제자들의 배신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온 세계를 구원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실패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습니까? 사랑의 실패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사랑해서 실패하지 않을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꿀은 맛볼지 몰라도 진실로 빛과 향기를 잃어가지 않습니까?

이영길 목사

<2012. 2. 26. 사순절 첫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나에게 사.순.절이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45-46)

사: 사람으로 창조 해주신

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목.....

사: 사망에서 구해주시는

순: 순결한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을

절: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재충전하는.....

사: 사랑으로 몸소 인간으로 오시고 그 완전한 사랑 실천하시려고

순: 순한 양처럼 죄 사함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절: 절로 고개 떨구며 눈물 흘리는..... 그런.....

김난희 집사

기도: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4-17)

어젯밤 꿈에 예전의 낯설지 않은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또 다시 나타났다. 작년 2012년, 늦가을에 용감한 열 명의 '시내산 동우회' 산우들과 Mt. Cannon 을 등산 할 때(가을과 겨울 산행을 동시에 경험함)의 일이다. 산 허리쯤인가 어느 절벽 옆길을 지날 때 좌측을 보니 때마침 내린 눈으로 덮힌 절벽이 이어지는 지점에 스멀스멀 피어 오른 자옥한 안개와 더불어 까마득하여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절벽 옆길을 지나가면서, 미끄러져서 추락하지 않으려고 그 주변의 나무 뿌리를 겨우 붙잡고 안간힘을 쓰며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산행할 때 이렇게 긴장하면 무척 위험하니 이럴수록 침착하자!” 스스로를 격려하며 전화기에 저장된 곡들을 들으며 긴장을 풀어야겠다 생각하며 음악을 틀자마자 이어폰에서는 귀에 익숙한 노래가 흘러 나왔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뛰어 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노래가 오늘날라 예수님께서 연인에게 프리포즈 하듯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오는 것 일까? 게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 말씀도 떠오르는 것이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4~17)

모두가 너무나 많이 긴장을 한 탓인지 하산 길에 두 분의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고, 또 한 분은 발이 눈으로 덮힌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서 잠시나마 당황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느덧 우리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하산하였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돌아오는 길에 근처의 맥도날드에 들러서 즐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선 꿈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내게 나지막이 속삭이듯 물으셨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형상이 잠시 눈에 어른거렸다. 덜컥 하염없이 눈가에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다. 그 동안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대답하였다. “물론이지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맡고요. 무척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선 꿈에서 깨어났다.

올해는 12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띠의 해라서 그런가? 새해 첫 날에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축복의 안수 기도도 받았고, 지난 생일 날에는 그 동안 기도를 자주 안해 주시던 집사님으로부터도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유난히 각별하게 느껴지는 해인 것 같다. 그 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또한 꿈에서 예수님께 대답한 것처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리라” 다짐하며 간절하게 기도한다. 동 트임이 보일 듯한 이 고요한 새벽녘에.....

올해 제게 주신 ‘은혜’ 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 하시길 기도합니다.

남궁 원 교우

기도: 항상 여러 교우님들을 섬기느라 힘드신 이 영길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앎이로다” (로마서 5:3-4)

사순절이 되면 늘 지난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감동은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그 뜨거운 눈물과 감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미지근해졌습니다.

사순절이 다가오면 일상의 지침과 피로함을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 제 삶을 접할 때나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지칠 때 어김없이 의심하고 원망했던 못난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깊이 없고 약하기만 했던 제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했지만 결국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를 통해 짝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은 인내와 연단을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란 걸 알게 되었고 주님이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의 제 삶을 다짐하려 합니다.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주님께 더 이상 작은 믿음을 핑계로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최미남 집사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딱히 내 심령을 울리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경험을 한 기억이 없다.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교육에 의해 내가 출석하던 교회의 거의 모든 예배와 부흥회를 참석했던 나는 그저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이라 생각했다.

중 고등부 시절 거의 모든 수련회를 참석하고, 밤새 철야기도를 하면서 옆 친구들은 울기도 하고 목청 놓아 부르짖기도 하는데 난 물러오는 줄음을 참지도 못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으면서 밤새 버티야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다. 다만 지금 생각해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고 3이 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녀석 학교를 오가며 교회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은 이제 겨우 자라기 시작했을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생살과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약간은 흥분되고, 나름의 자유를 만끽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속의 나는 영적으로 조금씩 지쳐갔었다 보다. 예전의 보호받던 신앙에서 혼자 이겨내야 하는 신앙생활로 바뀐 탓이었을까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해 여름에 전국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 중 고등부 시절, 늘 그랬던 것처럼 강사님이 누구였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조금은 강황한 강해 설교가 주를 이루었던 기억이 남는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쫓아다닌 덕에 성경지식과 해석에 나름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나에게 강해 설교가 그렇게 마음으로 잘 다가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었으니깐. 약간은 새로운 내용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다.

아마도 둘째 날이었을 것이다. 강사님의 강해 설교를 지루하게 듣고 있었는데, 거의 끝날 무렵, 한마디 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는,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 다음은 내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꾸라져서 울면서 소리 내어 기도하고 있던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자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던 순간을 되새겨 보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무슨 백마디 말이 필요할까..

나에게는 그저 이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면 충분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멘’

강민형 집사

.....
기도: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멘

'그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십자가에 달리신 비참한 그리스도의 모습 뿐 아니라 우리 눈에 비쳐지는 소중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한 사랑, “놀라운 하늘의 사랑”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의 대답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6-10)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소의 사울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후 바울로 이름을 바꾼 그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갈2:20). 회심할 때까지, 마음에 흠족할 때까지, 기준에 적당히 맞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방하며, 주님이신 분의 주장을 조롱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분의 사랑이 더 우세하였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죽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를 위해서도 죽어 가고 계셨습니다.

김 문 교우 (청년 2부)

기도: 논리를 뛰어 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 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면지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시편 103:11-14)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니 매시간, 숫자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죄를 짓고 사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행동하기가 일쑤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 되었으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내 모습을 번번히 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의 저이지만,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심판만이 합당한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아버지께서는 덮어주시고, 제가 변화되는 그 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번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뒤돌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는 똑같은 죄들의 반복이 가끔은 저로 하여금,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제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를 하고 나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의 죄과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며, 저의 죄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며 저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죄를 판단하여 벌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손수 하셔야 하는 일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제가 가야 하는 가끔은 외롭고 힘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서 칭찬받는 그 날까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차민호 집사
(2008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기도: 중국과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공홀과 진리가 만나는 곳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편 85:11)

샌프란시스코에서 진보적인 정치 활동가이며 소설과 논픽션을 쓰던 앤 라모트(Anne Lamott)란 소설가가 있습니다. 앤 라모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자서적인 책, [Traveling Mercies]란 책에서 자신이 십자가의 달리신 주님을 통해 거듭나는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이비 붐머로 60-70년대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리고, 파괴된 가정생활, 병든 몸과 빈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갈된 영혼과 지침으로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삶의 바닥에 내려갔던 어느 날, 그런 갑자기 자기 옆에 와 서계신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의 존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온갖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녀는 주님 앞에서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공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 다음과 같은 말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금이 갔는데, 그 금 간 사이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자기를 살렸다’ 고… 십자가의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홀로 생긴 인생의 반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공홀을 만난 그 순간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찢기 우선 살과 몸으로 우리의 죄를 떠맡으신 분, 주님의 사랑이 이 분의 삶에 깨어지고, 금 간 곳을 빛으로 메웠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들의 깨어진 모습에서, 금 간 모습에서 주님의 공홀을 체험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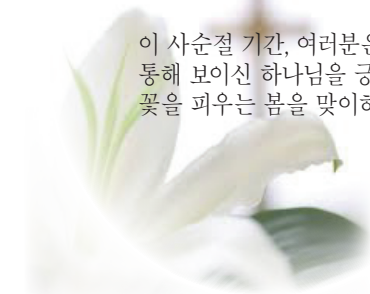
사실, 우리 주위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겪는 것을 듣고 봅니다. 자신의 삶에서 깨어지고, 상처 난 곳, 그리고 금간 곳 사이로 비취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분들은, 영혼의 새로운 회복을 맞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땅과 같이 굳은 마음에 녹아집니다. 마치 새로운 약동하는 봄이 영혼에 찾아온 것을 느낍니다. 그들에겐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어찌면, 이 사순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변화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홀로 새로워진 몸과 영혼은 주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이 땅에 얼어붙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공홀을 전하고자, 여러 모양의 공홀의 사역에 초대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삭막하고, 굳어진 얼어붙은 땅을 녹여 이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은 어떻게 영혼에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을 공홀을 다시 체험하며, 그 공홀을 함께 이웃과 나누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을 맞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윤경문 목사

<2012. 3. 4.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부끄러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5)

오래 전, 20여년 전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참 많이 속이 썩으며 힘들게 사셨습니다. 예배 도중 남편이 교회로 찾아와 소리쳐 불러 내기 일쑤였고,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도 싫어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편은 술, 담배도 안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간경화로 시작되어 결국 간 암으로 발병되었고, 몇 년 동안 집과 병원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고, 차오르는 복수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담임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심방을 하셨고, 결국 그분은 병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과 장모님되신 권사님께서 병실을 지키는 어느 날 밤에, 그 남편이 두 분을 부르시며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지금 하늘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비추었는데, 내가 그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도 부끄러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며 손 꼭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 그분은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이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나에게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않던 집사님은 너무도 놀라웠던 경험이었다고 이야기 해 주셨고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아 부끄러운 구원이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김춘미 집사

.....
기도: 주님, 끝이 없이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매 순간 순간을 현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去(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마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마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교회의 표상이 십자가(十)인 이상 사순절이 완벽히 지켜 질 수 있을까? 사순(四旬)이란 Lent의 기원은 라틴말의 “Quadragesima”, 즉 “40”이라는 뜻. 일요일을 빼고 약 6주간이 부활절까지 계속된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성 목요일(Holy Thursday 또는 Maundy Thursday) 즉 부활절 전야(Easter Eve) 까지. 이 ‘사십’의 뿌리는 구약성서의 신명기 8장2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Manna)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신명기 8:3).” 이 말씀을, 40 주야를 금식하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곧 “네가 하나님의 아들” 입을 증거하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같은 말씀을 인용하셨다 (마태복음 4:4).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이르며 (요한복음 1:1),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며 예수님은 “十:십자가 사랑”으로 증거된다. 해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창고”이며 이 말씀이 곧 十사랑이다. 十의 세로대(丨)는 ‘하나님을 사랑’, 가로대(—)는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마태복음 22:37-40) 하여 사랑에서 사랑으로 “흙(土)”이 되는 것이 十이다. “사랑하다가 죽어 흙이 되라”는 표시가 去: 갈거(離), 영생하는 나의 영혼과 영생하는 나의 몸이 분리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離去(이거)다. 이 글자는 “내 몸에 十가 선 흙(土)”이다. 곧 十를 세운 교회의 분신(分身)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마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못박혔)니라 (갈라디아서 6:14) “내가 예수님 사랑을 위하여 어떤 十가에 못 박혀있나?” 이번 사순절의 숙제이다.

신영각 집사

기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예수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4)

김동길 교수를 교회 사진전의 사진에서 보았다. 옛 시절 사진에서 그가 젊다. 나비넥타이는 다르고, 검은 곱슬머리 장발이 새롭다. 김교수는 우리의 옛 교우다. 그가 가을을 읊었다. 노래는 가을이라 했다만, 겨울인듯 싶다. 촛불을 밝히고 밤새워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아, 아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고난 주일은 봄이다. 보스톤의 봄은 아직 춥다. 겨울이 끝나지 아직 않았다. 아아, 고난은 봄일 것인데, 겨울 밤에 예수님은 혹독한 봄을 맞는다. 겨울이 지나면 봄일 것인데, 아직 봄은 오지 않았고, 겨울 밤만 계속된다. 예수님은 쌓인 눈을 보고, 촛불 밝혀두고 홀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망연히 앉아 기도하는 예수를 보았다는 말이다.

주님, 길고 긴 겨울 밤은 어둡고 춥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봄은 아직 멀었나 봄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촛불 밝히고 혼자 우는 날이 지나고, 때가 되면, 봄이 올 것이고, 제가 당신이 간 길은 따릅니다.

‘아아, 너도 가면 나도 가야지.’

다시 김교수가 윤선도의 시조를 읊었다. 세월의 덧없음과 늙어감에 감상에 젖는 듯싶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꽃은 피었다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요, 풀이 푸르렀다가 다시 누렇게 변해감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이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만 바위같이 굳게 서 계신다

김화옥 집사

기도: 주님, 저희에게 바위와 같은 믿음과 반석과 같은 굳은 신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난에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5)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지하 소예배실 옆에 있는 7번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찬양팀의 기도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6월 둘째 주일부터 2부 예배 시작 전 약 15분동안 교우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순서가 생겼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찬양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며 개인적으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찬양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과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곡을 선곡하고 구성하는 동안 때로는 성경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의 가사말을 통해 나에게 들려 주시는 메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벽찬 감격과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교우님들과 나눌 수 있기를, 그리고 찬양시간을 통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팀원들과 함께 매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이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부담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깨달은 그 부담감은 바로 “찬양 시간을 통해 교우님들 마음을 열고,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찬양 인도를 잘 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시간을 지배하고 있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나를 옥죄는 시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는 순간에도 나의 주인이 뒤바뀌는데, 하물며 세상 일을 하는 시간에는...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도 많음을 새삼 느끼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일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시간은 내 삶에서 얼마 만큼일까?’ 선뜻 “첫번째요”, “매순간이요”라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인데 어찌겠어”라며 그저 나의 연약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자기 합리화에만 빠져 도망가기만 한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짜사랑’이 되고 말겠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이라도,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찬양 인도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최현구 집사

기도: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신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Recalculating!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5)

처음 가는 곳이나 가는 길을 정확히 모를 때 우리는 요즘 GPS를 자연스럽게 켜고 ‘길순양’의 인도로 길을 찾아간다. 전에는 길을 모를 땐 물어 물어 가곤 했는데 그래서 한번 가 본적이 있는 길은 잘 기억해 곧잘 가고, 한번이든 실수해서 잃었던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또 헤맬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같을 것이다. 목표가 있고 가야 할 길을 잘 안다면 길을 헤매지 않고 잘 갈 것이다.

몇 년 전 지인과 함께 뉴욕에 모임이 있어 GPS에 주소 입력하고 운전을 하며 그 시간 동안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체면 없이 신나게 깔깔거리며 drive를 즐기며 갔다. 너무 이야기에 심취해 길순양이 인도해 주는 길을 놓치고 만 것이다. ‘어어~’를 외치며 출구로 나갔는데 길순양이 외치는 소리가 있다. “Recalculating!” 슬쩍 미안과 무안함에 바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워낙 갈림길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또 다시 길을 놓치고 말았다. 길순양의 연거푸 퍼붓는 ‘Recalculating!’에 괜히 짜증이 났다. ‘그 말 외칠 시간에 갈 길이나 좀 빨리 알려주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사 재미에 정신 놓고 헤매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펜스레 길순양에게 분노로 표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우리가 갈 길을 헤맬 때, 특히 세상 재미에 취해 길을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을 것이다. “Recalculating!” 옳은 길로 들어서기 까지 물론 쓰고 시고 뺏은 어려움의 맛도 볼 것이고, 눈물 콧물도 흘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GPS로 보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엉뚱한 곳으로 향해 가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국의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길순양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운전하며 가니 결국 길순양이 “니 맘대로 가세요!” 하더라고...예수님도 참음으로 인도해 주시다가 결국 ‘니 맘대로 가라’ 하며 포기하지는 않으실까.

고통의 멍에까지 쓰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로 오신 예수님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다.

김한나 집사

.....
기도: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망설임 없이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회복시키는 하나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36)

저의 길지 않은 인생의 여정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라고 외치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계획이 생겼습니다. ‘아, 이젠 아이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금세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을 묵묵부답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던 저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원망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질투합니다.

그러던 중 시작한 성경일독.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 주님은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발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폭풍 같은 눈물의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제게도 그리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 후에 반드시 네 기도에도 응답해 주겠다” 라는 강한 확신을 주님과 동시에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기도로... 그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간 허락하실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제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 기도가 바뀌던 그때.. 바로 그때, 그렇게도 오랜 기간 바라고 또 바라던 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작은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고통이라 느끼며 괴로워하던 순간순간에 주님도 저와 함께 아파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제가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무한히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속해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주님.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아니 평생 동안 저의 겉모습을 버리고 제 안의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저를 통해 일하실 주님만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유진선 집사

.....
기도: 저의 삶이 주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삭의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세기 22:9-10)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매일 매일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왕관을 차지하려고 동분서주 뛰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남은 사순절 분주했던 우리들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차분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왕관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단두대로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삭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단두대에 스스로 선다면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에 시퍼런 칼에 맞으시는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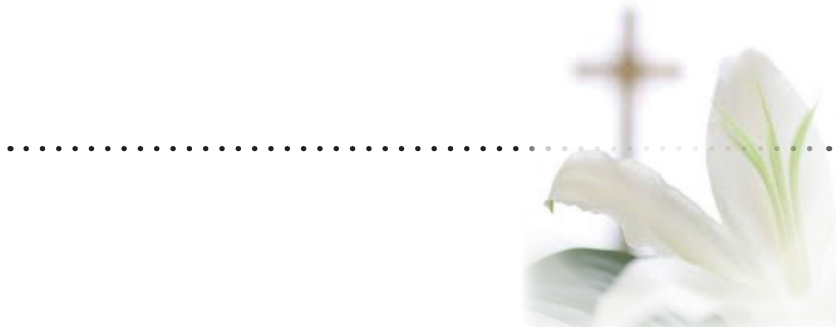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시퍼런 칼에 맞으셨습니다. 찢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칼에 맞으시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사박 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단두대에서 자기에게 향하던 시퍼런 칼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 칼이 다른 사람의 목을 찢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옆에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시퍼런 칼이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칼은 옆에 있는 사람의 목을 찢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였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새로이 만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이삭과 더불어 말없이 나의 단두대에 오르는 절기입니다. 왕관을 쓰려고 애쓰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단두대에 오르는 절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를 향하여 내리치는 시퍼런 칼을 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내리치는 칼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영길 목사
<2012. 3. 11.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4)

딸아이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서 다니러 온 누나가 어느 날 “너희는 누군가 길거리에서 차비가 없다고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긴 했었지만, 흔쾌히 지갑을 열어준 적도 있었고 때문 그 사람의 겉모습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선입관 때문에 그냥 지나친 적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교역자 모임으로 일산교회를 가야 했는데 역까지 태워준 다른 전도사님 차에 지갑을 두고 내려 차비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오고 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차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근 삼 사십 분 동안 사람들은 그저 못 들은 것처럼 냉랭한 표정으로 귀찮다는 듯이 무심코 지나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나는 정장차림의 모습이었는데 멀쩡한 여자가 무슨 다른 속셈으로 돈을 요구하는 줄 알고 불쾌한 모양으로 정말 아무도 1,000원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역무원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사정 얘기를 다 듣고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무임승차권을 주면서 빨리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누나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베풀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도와달라는 모든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나쁜 일을 한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중에 정말로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선 무조건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선 분명 이것 저것 따지고 미리 결정하고 결론 짓지 않으시며 조건 없는 사랑의 값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 다시금 감사 드립니다.

이문영 집사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웃을 돌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Nothing else!).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2010년에 보스톤으로 이주 한 후 2년여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출가한 딸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나누던 어느 날 출가한 딸과 6살이 된 손주의 대화 내용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윤찬이는 기도 제목이 뭐야?”

기도 제목이란 뜻을 모르는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니깐 엄마가 6살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합니다. “아~~ 윤찬아~~ 윤찬이가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뭐냐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아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나? 싶어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고 또 없어?”

아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Nothing else!”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옮기는데 한 분은 “강대상 옆에 놓아야 한다” 하고 한 분은 “단상 위에 놓아야 한다” 하며 피아노 놓는 위치를 논하다가 두 분의 관계가 깨지고, 급기야는 한 분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가족 사진을 찍으며 아내는 “나무가 옆 배경으로 나오게 찍어야 한다” 남편은 “나무가 가운데 배경으로 나와야 더 멋있다” 미래계획을 하면서 아내는 “.....” 남편은 “.....”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내는 “.....” 남편은 “.....”

아내나 남편 모두 가정을 위한 목적은 같은데 서로 다른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목적은 없어지고 생각이 틀리다... 성격이 안 맞는다... 대화가 안 통한다... 하며 급기야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일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제 영리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큰 문제로 유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극히 합리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용하여 미세하게 벌어진 믿음의 틈새 사이로 들어와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동역자와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고 합니다. 구원에 관계되는 일 영생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갯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외에는 Nothing else!” 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미옥 집사

기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15)

지난해부터 갑작스레 한국에서 한 학기씩 강의를 하게 되어서, 뜻하지 않게 기러기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아베스의 기도를 그 동안 드러왔는데 응답으로 저를 한국으로 보낸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집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주위에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어찌 보면 이민이나 유학으로 이곳에 와 있는 저희 모두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만 하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사랑의 단단한 끈으로 묶어놓고 계십니다. 저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주님은 저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엮어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떨어져 있는 저희들을 외롭지 않게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김성현 장로

기도: 주님,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저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음은 항상 같이 있음을 믿습니다. 역경 가운데도 굳건하게 끈이 설 수 있는 가족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초등학교 5학년 처음 교회에서 첼로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악기로 예배 드리는 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당시 섬기던 교회 어른 대예배에서는 전공자들만이 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공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저 주님께 찬양 드리겠다는 마음만으로 시작하였지만 정작 예중으로 진학한 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치열한 경쟁과 학업을 핑계로 교회 봉사와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덧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다. 입으로는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 전공을 하고 있다 하였지만 구할 줄을 전혀 몰랐고 나의 계획과 욕심만이 넘쳐났다.

그렇게 예중, 예고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처음 한국에서의 대학 입시에 실패하였다. 너무 절망스럽기만 하고 세상 모든 것이 야속하고 그 동안 주님께 더 좋은 모습으로 찬양 드리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셨는지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그 아픔마저 주님께 내어 놓을 줄을 몰랐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수련회에서 진정 주님을 만났다. 아직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또 다른 입시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 컸지만 그 곳에서 놀라운 치유가 있었다. 다시 한번 내가 첼로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 해 주실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또 다른 입시를 준비하며 때로는 막막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주시었다. 한국 대학만을 준비하던 나에게 재수 시절 만나게 된 교수님께서 갑자기 미국 대학을 권해주셔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설마 미국 대학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 준비한다는 미국 원서를 나는 단 3일만에 녹음까지 마치고 접수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는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한국 대학은 또 다시 실패를 하였고 남부럽지 않게 미국 대학에 합격하였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갑자기 준비한 탓에 부족한 언어 문제로 한 학기 늦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갖게 되어 그 마저도 감사였다.

그렇게 2011년 1월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감사하면서도 새로운 땅에서 혼자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두려움도 컸지만 주님께서 나를 더 붙잡아 주시었고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겨낼 힘을 주시었다. 지칠 때에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함을 떠올리며 견뎌내었다. 아직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의 나 됴도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이니 하루하루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입니다.

김지은 교우 (청년1부)

.....

기도: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희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안에서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깨의 낡은 붓짐을 내려놓고 싶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긴 악몽으로 하얗게 긴밤을 훌훌 벗어 버리고
억새풀 잎새사이로 또 하나의 일출을 맞는다
긴 산고 끝에 내린 이슬을 삼키며
용드립하는 고목나무 아래에서
이제 한숨을 돌리고 싶다.

수많은 날들을 살아온 고목의 노래를 벗삼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잎새마다 빼곡히 써온
주옥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축쳐진 어깨의 낡은 붓짐을 내려놓고 싶다.

암흑 속을 헤매이다 힘겹게 파닥이며
폼 속을 파고드는 철새의 등지가 되어주는
고목나무의 한없는 자비를 닮아가고 싶다.

모든 만물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칠혹같은 어둠속에 햇불이 되기까지
고목나무가 걸어온 저 *비아 돌로로사의
거친 고난의 세월을 영원히 기억하리라.비아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슬픔의 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십자가 수난의 길).

심윤보 집사
(2007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기도: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둘이 아닌 우리를 위해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의 모습이길 간구하나이다. 아멘.

두 마음 VS. 믿음으로 기도하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6-8)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빠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과 때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어 항상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속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어학 연수차 오게 되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기 위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나오기로 하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리라 믿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엔 “정말 구해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새로운 집을 찾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잠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집을 달라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는 집을 나오기 하루 전에 새로운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그리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더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계획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정동녘 교우 (청년 1부)

기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야곱의 돌베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8:18-19)

우리는 이삭에게서 단두대에 오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야곱에게는 배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도 야곱에게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야곱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보니, 그래도 하나는 있어 보입니다. 돌!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돌기둥을 세우는 것 정말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돌에 기록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야곱에게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작자 미상의 ‘슬픔의 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 둔 뽀족한 돌멩이와 같다. ………
때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잠시 맡기기도 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멩이를 꺼내 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것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순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글어졌을테니까.’

이 시의 내용보다는 제목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야곱의 돌베개도 슬픔의 돌베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야곱의 돌베개는 슬픔의 돌베개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딱딱한 돌은 바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죄성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성은 바로 돌, 그 자체였습니다. 곧 자신의 죄성이 바로 자기를 돌베개를 베고 자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슬픔의 돌베개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돌베개 이전에 죄성의 돌베개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며 깊은 잠에 빠져 들어 갑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깜짝놀라 잠에서 깬 후 돌베개로 기둥을 세웁니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아닐까요?

이영길 목사
<2012. 3. 25.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설거지를 하다가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살다가 이 먼 미국땅까지 와서 가정을 일구며 살다 보니 가끔씩은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또 학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야만 하는 내 자리가 힘겹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나 홀로 있는 양 외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고비 한고비 힘든 나에 비해 쉽게 이루어 나가는 듯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시기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왜 항상 저입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깊은 곳의 이런 의문을 버리지 못하는 내게 주일날 목사님 설교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은 듯 멍하게 있다가 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불평 불만에 일그러져 복 주십사 조르기만 했던 나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나의 시련이 하나님의 담금질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찌 평탄하기만한 길이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저는 소망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담금질을 즐겁게 감내하며 내 안의 감사를 누리기를...

박양신 집사

.....

기도: 저에 대한 하나님의 담금질을 즐겁게 감내할 단단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



동행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이십, 그리고 육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분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직장 상사였는데, 외국인인 나에게 특별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못 알아 듣는 듯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영한 사전을 뒤적이며 알려줬다. 그의 행동은 평소에 하듯, 자신의 행동을 했던 것이었다. 즐겁게 일하던 중 4년이 지난 어느 날, 가장 신뢰 받던 그 직장 동료가 떠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일년여가 지난 후 그가 떠나게 된 사건의 전부를 알게 되었고,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을 직감했다. 당시 나의 상사였던 그 분이 힘들게 결정했어야 했던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가 일하던 이곳에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그 분은 3년 전 은퇴 후 남쪽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자식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서 오실 때 가끔씩 나를 찾아오셔서 뜨겁게 악수를 청하곤 한다.

“필연은 우연으로 시작된다”란 말이 떠오른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어우러져 살고 있다. 모퉁이를 돌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지만 필연으로 맺어진 준비시켜 놓으신 분들과의 동행은 늘 즐겁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안 정말 힘들고, 고통과 인내를 동반해야만 이룰 수 있다. 사순절 동안 만이라도 “주님과의 동행”하려 몸부림 쳐 본다. 40여일 동안 무엇을 ‘안 먹고, 안보고, 않는다’는 어려워도 지킬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절) 말씀처럼, 성전은 움직이는 유동성 때문에 동행도 더욱 힘들다. 사순절 동안 체질화된 좋은 습관으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즐겁고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이정규 장로

기도: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하루를 붙박이 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2:20-21)

20살이 되던 해에 제 가슴을 파고 들었던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스톤 어느 한 교회에서 열린 한비아씨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강의는 제 삶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비아씨는 그녀의 일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구호 현장에 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등 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녀는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던 것은 한비아씨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들이 너무 기대가 된다며, 죽기 전 그 선물들을 모두 풀어보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누군가가 제 머리를 광 하고 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물은 내 부모님의 건강, 내 친구들,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용돈 등 내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하나님께선 나에게 왜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찬타할아버지 정도로 생각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게 수많은 선물들을 퍼부어 주셨을텐데, 저는 그 선물들을 모두 모른 척 한 채, 제가 좋아 하는 것들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 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 다 받아낼 수 있게 더 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 많이 나약하고 미성숙하여 하나님의 선물들을 모두 풀어 볼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은 기쁠 때도 많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제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실 것이라 또한 그 사랑이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권예림 교우 (청년 1부)

.....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비전을 두고 사명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고난 뒤 새로운 평안을 사랑하신 주님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 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27)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유함보다 가난한 자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으므로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편안함보다는 고난과 역경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택하신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 뒤 찾아오는 평안을 더 사랑하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 하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중 한사람인 도마, 그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도마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나를 만져보라” 시며 믿게 하시고, 도마로부터 “오 나의 주여”를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도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많은 일상의 기적이 우리의 주변에서 날마다 펼쳐지건만 우리의 닫혀진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워진 눈으로 인해, 우리의 무뎠진 감각으로 인해,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덜 익은 자존심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린이처럼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그땐 기꺼이 다가와 주셔서 달래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들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천국 면류관을 마다하고 가시 면류관을 택하신 주님의 그 결단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김동숙 집사
(2007년 사순절 묵상집에서)

기도: 주님! 주님의 범치는 은혜에 오직 헌신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아멘.

Lenten Reflection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사순절은 저희 모두가 잘 알듯이 부활절 전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과 저희를 위하신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로 이 기간이 되면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금식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저녁 금식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몇 주가 지나니 사순절에 의미를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제 자신의 목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얻는 그 성취감을 위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를 해줄 듯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40 일 뿐만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11학년 학생으로서 공부와 학교 때문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거나 숙제가 많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바쁘다고 투정을 많이 부립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40 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아직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회인이 되고 더 바빠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을지... 물론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 제 삶 속 매 순간 순간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합니다.

바쁜 삶 속에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방재원 교우(중고등부)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고통과 사랑에 대해 배워가면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 화평이 아니오 검(칼)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34)

올해 사순절엔 “칼” 과 함께 해야겠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칼” 로서 지목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35) 하였다.

숨쉬는 심장에 칼이 박히면...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아픔이 오지 않았던가!

바울 사도는 이 칼을 성령의 검(칼)으로 비유했다. 세상 악한 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17) 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육신은 전신갑주로 방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의 “칼” 이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한다.

주야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4)고 말씀하셨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의 칼” 이 곧 생명을 이끄는 도구(길)란 말씀이니, 고로 ‘칼’ 과 함께 하리라.

홍경자 장로

기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목상하면서 매일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받는 종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썩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묶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기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묵상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레 요한
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
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신대 오리라 한
엘리아가 곧 이 사람이니라”(마태복음 11:11-14)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
면서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을 따르는 것처럼(막8:34)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
각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세레 요한의 사역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
음 11:2~19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표현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서는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11:9~11). 세레 요한이 이렇게 예수
님께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세레 요한이 했던 사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레 요한
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한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
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하면 자신들도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레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레 요한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
람들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의 비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레 요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감당하였던 사역은 자유하지 못한 자들, 그리
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믿고 있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일 수도, 보스턴 한
인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
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
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레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보고(요1:39), 교제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
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송민철 교우 (청년 2부)

기도: 비록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16-17).

저희 집 밥상에 요즘 긴장감이 돕니다. 밥알이 날아 다니고, 반찬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바닥으로 수없이 끈두박질을 치며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화목합니다만.. 이것은 다 저희 집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 15개월된 쌍둥이 남매(희준, 희진)의 편식 때문이지요. 마음에 맞는 음식 (빵, 요구르트 등등)을 먹을 때는 저희와 애교스럽게 눈을 맞추며 웃고, 박수도 치고, 각광도 하고, 아기참새 같은 입을 힘껏 열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마음에 안 드는 음식 (두부, 계란 등등) 을 만나면 돌변해서 입을 굳게 닫고, 돌아 앉아, 벨고, 던지고, 울기도 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하는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들에게 승복 하려다가도 “지금은 싫고 힘들겠지만 골고루 먹고 몸에 좋은 단백질과 야채를 듬뿍 섭취하면 튼튼하게 잘 클 거야” 라고 말해주며 다시 한번 아이들 입에 손가락을 넣어 봅니다. 무조건 웃게 해주는 것만이 아이에게 좋은 parenting 이 아니라 쟁그리고 나를 밀쳐내도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엄마로서 나의 임무이구나 사뭇 느끼며..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영적인 편식을 하며 때를 쓸까? 내 뜻에 맞고 나의 계획에 착오가 없이 인도하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나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 하실 때는 은근히 원망하며 등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나는 주님께 빵과 요구르트만 달라고 떼쓰며 기도하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길이 혹 평탄하지 않고 좁은 길 이라고 해서 입을 꼭 닫고 던지고, 안 먹겠다고 때를 쓰지 않았는지... 회개를 해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소하고 일상적인 나의 하루에서 귀한 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수경 집사 (부부 청년부)

.....

기도: 우리 어린 자녀의 마음 속에 영적인 뿌리가 올바르게 내려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부모가 되게 인도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1서 4: 7)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언제라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랑 그 본체시니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일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선한 모습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을 되풀이 하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 그분의 사랑 앞에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내립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로와 상관없이 그 모습대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 자체입니다.

김영경 장로

기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로마서 10: 5)

칼빈, Calvin Jean (1509-1564)은 프랑스의 신학자 종교개혁자이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Luther Martin(1483-1546)에 이어 신교를 구교에 비길만한 큰 세력으로 키운 그는 북 프랑스의 와이온에서 태어나 파리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이에 신교 사상에 깊이 공명하게 되었다. 그 당시 신교의 대한 탄압이 그에게도 미쳤으므로 스위스 바젤로 달아났다. 본국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탄압이 심했을 때 칼빈은 바젤에서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크리스찬 강요]를 썼는데, 그 책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렸다고 한다.

27세부터 죽을 때까지 신교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어 1536년에 제네바 시의 대성당의 설교자가 되어 교리문답을 만들고 내용을 고치는 데 손을 데었으나 반대자의 방해로 추방되었다가, 1541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힘쓴 결과 그가 이끄는 칼빈파는 루터파와 더불어 신교의 2대 세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 전쟁’을 거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청교도), 나아가 미국까지 퍼졌던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 같이 성서주의를 취하여, 구원이란 성서의 복음을 믿는 데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복음주의가 인간의 구원은 미리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의 행위나 신분 직업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예정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힘껏 살아가지 위하여 다같이 평등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직업윤리). 그와 같이 시민들에게 신앙적이며 생산적이고 규율 바른 생활을 하도록 가르친 칼빈의 사상은 근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한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고난을 생각하며 신앙을 위해 분투했던 칼빈의 고난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최선경 권사

.....

기도: 하나님 아버지, 루터와 칼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별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 3)

얼마전 정확실 장로님께서 소전을 받으셨다. 주일 오전 소그룹 성경공부반에서 만나, 불과 매주 1시간의 성경공부 시간에만 만났지만, 정 장로님은 내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셨다. 항상 모든 멤버들을 반갑고 맞아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여 대해 주신 장로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또한 성경공부 시간에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셨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의 어렸을때 신앙 생활, 북한이 공산화 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월남하고 겪었던 삶의 이야기들, 6.25전쟁 전후에 어려웠던 삶에 대한 나눔, 고 이영덕 장로님과의 결혼생활, 자녀를 키우시며 너무 엄격하게만 키우려 했다는 회한, 보스톤에 와서 사시면서 정원을 가꾸시며 이웃들과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시는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남기시고 떠나셨다. 이제 정 장로님은 내 마음에 또 하나의 별이 되셨다.

하늘에만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있다. 하늘의 별이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이 각기 다른 크기와 빛깔과 위치를 가진 것처럼 내 마음의 별도 각기 다른 빛을 발한다.

인생에는 낮도 있지만, 밤도 있다. 특별히 인생의 어두움에 지나갈때 이 별들은 더욱 아름답게 내 삶을 비춘다.

달도 별도 없다면, 밤은 얼마나 무섭고 길까. 또 어찌 밤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마음에 뜨서 어두움을 밝힐 별들이다.

박신영 장로

기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유준이를 통한 가정의 회복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2011년 4월 17일 밤 11시 54분.. 고난주간 주일날의 끝자락을 붙잡고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아빠를 닮아 “길치”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28시간 동안 나올 길을 찾아 헤매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최유준, 다니엘”

저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고, 저희 부부의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멋진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He’s an upgraded version of you guys.” 아가를 유심히 들여 볼 때마다 저희는 깨닫습니다. 왜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더욱 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또한 많은 시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기간 동안 친히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저희 부부의 상한 마음을 다듬어주시고,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 저희가 서로를 이해해가고 성숙해 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먼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4대째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던 한 아들과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배타적이었던 딸을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어 주시면서 많은 도전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동갑내기 장남과 장녀, 그리고 그 당시 결혼이 금기되었던 동성동본까지... 이런 모든 언밸런스 된 조건으로 이루어진 저희 부부에게 그 무엇보다도 조화롭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유준이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시련과 축복을 깊이 묵상하게 하였고,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와 산모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제 평생 드렸던 새벽제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되지 않아 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 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는데, 저희들은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와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 매일매일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을 주십니다. 저희에게는 유준이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금은 부부 청년부의 회장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십 년간의 기도로 세상에 나온 유준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니깐요. 오늘도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를 재우고 있습니다. “유준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

최학수/최안나 집사 (부부 청년부)

.....

기도: 내일이 불확실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23)

오늘 종려 고난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은 만인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죄수가 되십니다. 죄수가 되신 후 아무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빌라도 앞에 서신 장면이 마가복음 15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이번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또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보통 죄수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려고 별 간청을 다 하는데 이 분은 달랠던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 주님은 아무 말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신이 가서야 할 죄수의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당신이 죄수의 길을 갈 때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지난주 교회에 있는데 중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두 자녀를 이곳 근처의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이 분의 부탁은 그래도 자기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11학년쯤 되었고 또 한 자녀는 6학년이라고 하시면서 11학년 아이는 아직 교회 보낼 생각이 없고 6학년 아이만이라도 교회에 다니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 놓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왜 11학년 자녀분은 교회에 보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내용인즉 원래 두 자녀가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학교를 다녔고 그곳의 한국인 가디언이 자녀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 분이 잘 돌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디언이 크리스찬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학년 자녀는 교회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6학년 자녀는 아무 것도 모르니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가디언도 오늘 어느 교회에 전가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종려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게 마음 속에 기리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분이 중고등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수 밖에 없을까요?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을 뜻있게 보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울러 주변에 있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십시오. 인류 구원 역사는 감옥을 통해서 진행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인류를 구원하는 꿈은 반드시 감옥을 통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 꿈이 무르익는 현장을 함께 찾아가십시오. 우리 개인들을 위한 꿈은 감옥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위한 꿈 인류를 위한 위대한 꿈은 감옥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까요?

이영길 목사

<2012. 4. 1. 종려. 고난 주일 설교문 중에서>

나를 축복 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2-3)

2010년 3월, 다른 변화가 없는 조용하기만 하던 나의 삶에도 조금은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한 달여를 넘게 이어온 두통 끝에 찾은 병원에서 나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놀랄만한 일이었고 나 역시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큰 사건이었다. 사망률 70%라는 이 병 앞에서 나는 조금은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6개월 간의 항암치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나 역시 얼마간을 멀리했던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게 되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내가 그 동안 옳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으로 부터 멀리 도망가며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십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나 또한 느끼면서 지금의 고통 가운데 서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3천년전의 하나님의 축복을 나 역시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느끼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항암치료 후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15년 전 이곳 보스턴에 온 뒤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업 역시 순탄히 잘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생활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사망률 70%, 혹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며 3개월 안에 100% 사망 이라는 치명적인 병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셨다. 축복을 주시는 시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과 죽음뿐인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의 평화도 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낮추시며 시험하신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우리를 바라신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을 위한 시험일지라도.

강모영 교우

기도: 주여, 지금 나의 괴로움 삶 또한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죄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역대상 16:39)

요즈음 수요 여성 성경공부 반에서는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다. 특별히 근래에는, 위대 하지만 또한 죄인이기에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나는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 동안 나는 다윗 왕의 가장 큰 죄는 충신 우리야의 사랑하는 아내 밋세바를 빼앗기 위하여 그를 일부러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든 살인죄라고 알고 있었다. 자기는 많고 많은 부인들과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면서도, 또 다른 욕심에 못 이겨서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는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의 배다른 많은 아들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을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도 허락하시고, 그 외 많은 축복들도 허락하시지만...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유명한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었으니...그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계율을 어긴 죄이다.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 16:2) 라고 여러 번 말씀 하셨는데,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라고 써여있다. 그 뜻은 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지 않고, 남겨둔 몇몇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로 인하여 후에 그 남겨진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에 죄가 들끓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한다. 불순종, 곧 죄의 결과가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사회에까지 퍼지는...

나는 이것을 배우면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주님의 계명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는 불순종의 산당들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청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남은 죄의 산당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이웃 및 온 세상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기 전에...

이렇게 건강하고도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죄를 낱알이 깨닫기 불가능하므로, 2013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주 예수님께 다시금 한없이 감사 드립니다.

이성혜 사모

기도: 주 예수님, 이렇듯 연약하여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 죄인들을 붙잡혀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아멘.

라보니아

“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아 하니”
(요한복음 20:16)

잠이 일찍 깨었다.
이럴 때는 늘상 하듯이 얼른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한잔 만들어 갖고는 거실로 가 창가에 놓인 내의자에 앉았다. 창문의 커튼을 여니, 동쪽 하늘이 바알강계 물들어오고 있었다. 아마 날씨가 좋으려는 모양이다. 욕심 같아서는 내일도, 모래도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마당에 쌓여있는 눈과 얼음들도 모두 녹아 없어지고 따스한 봄날이 성큼 앞당겨 왔으면 좋겠다. 전에는 겨울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며 그런대로 겨울 재미가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다. 겨울이 지겹게만 느껴진다. 아마 나도 이제는 보스톤에 너무 오래 살았나보다.

여기 보스톤에 사는 우리들은 부활절을 봄철에 맞는다. 모르긴해도 2000년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도 분명히 아름다운 봄날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덤속에 계시는 그 삼일간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부활의 동산을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꾸며 놓으셨을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으니 그 부활동산이 눈앞에 흰하게 나타난다. 조금 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혈레벌떡 달려와서는 빈무덤 속을 힐끗 들여다보고는 얼른 사라졌고, 또 그곳에서 얼마 멀지않은 마가의 다락방에는 다른 많은 제자들이 모여 문의 빗장을 꼭 잠그고는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다. 혼자품으로 무섭지도 않은지 아까 어둑어둑 할때부터 와서는 무덤가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 자기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랑 모두 제쳐놓으시고.

왜 그러셨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는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 또 나하고는 어떻게 달랐을까? 성경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삶이 온통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찬 분이였다. 일곱 귀신을 기적처럼 내쫓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허락하여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 12제자들 못지않게 주님을 따르며 그의 하시는 일을 힘껏 도와주고 섬겼다. 주님이 십자가위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모든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 도망가 숨었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밑에서 주님을 지켜다. 이 세상 아무것도 무서운것이 없었다. 이 부활의 아침에도 혼자서 무덤엘 찾아와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

다시 말해서 다른것 다 제쳐놓고 그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감사할때 거기에 순종과 따름이 있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며 주님과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받은 은혜의 감사”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일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다.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의 뜻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못했었다. 늘상 재고, 따지면서 복잡하게만 믿어왔다. 나름대로 이것 저것 노력도 해왔지만, 헛수고가 아니었나 두렵다. 이 수난절 동안에는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린아이가 되자고 결심해본다.

김성빈 장로

기도: 마음이 아프고 낙심될 때에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 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 봅니다.

-엄마, 만약에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엄만 오래오래 살 거야 걱정 마.

언젠가 꿈속에서 길을 잃어 울며 울며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끔찍하게 캄캄한 거리를 헤매다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 집중할 것을 찾고, 사랑할 것들을 기다립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은 늘 수면 아래에 남겨둔 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을 지를 생각 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그 두려움이 너무도 컸을 십자가의 길.

감당 하기 앞서 그 보다 더 아팠을 마음의 두려움.

구원의 길이라기 보다는 형벌의 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주님은 그 두려움의 어두움을 한가지로 바꾸십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많은 생각들을 단 한가지 생각으로 바꾸십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뚜렷해 집니다.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뜻은..

그 뜻은...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단 한마디.

너.를.사.랑.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 이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뚜렷해 집니다.

단 한마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너.를.사.랑.한.다.

너.를.사.랑.한.다.

너.를.사...랑...한...다...

조유미 집사

기도: 주여, 우리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올 한해 건강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 금요일에 드리는 기도

오, 사랑의 하나님이지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어떻게 팔리어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오늘 우리는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친구 중의 하나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배신만큼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배신치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진실을 다 할 수 없을 때 당신을 부인하는 비겁으로부터, 당신의 곁에 누군가 꼭 서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당신을 배신하는 불 충성으로부터, 신앙이 뜨거웠다 차다 변하기 잘하는 변덕스러움으로부터, 어렵고 위험한 때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유리한 때만의 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여,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현존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동참케 하소서.

이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간구합니다. 아멘

윌리엄 바클레이



iPhone의 사망과 부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전서 15:4)

2011년 성탄절 선물로 우리 아들 James와 며느리 Terry 부부가 우리 부부에게 iPhone 하나씩을 자기들 family plan에 넣어 주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이가 한걸음씩 땀 때마다 손뼉 치며 기뻐하는 부모들마냥, iPhone의 기능 한가지씩 익혀가는 우리들을 보며 박수 쳐주는 주위 분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도 열심히 iPhone을 한가지씩 배워가고 있다.

이 열심 속에서 얼마 전 문제가 생겼다. iPhone이 항상 손바닥에 붙어 다니는 문제 말이다. 2012년 성탄 며칠전 우리 집사람 김계숙 권사가 왼손에 iPhone을 들고, 오른팔에 빨래감을 한아름을 안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한 후, dryer에 옮겨 넣는 중 뭔가 “딩” 하며 떨어진 것을 보니, 아차?! 손바닥에 붙어있던 iPhone이 그 속에서 한 시간 이상 때를 벗기고 나온 게 아닌가!!! 황급히 iPhone을 꺼내서 물기를 말끔히 닦고 on switch을 눌러보니 깜깜 불통이라!!! 오호라, “iPhone 사망” 이рода.

iPhone이 없는 깜깜한 세상살이 하루, 이틀, e-mail도, 카카오톡도 할 수 없는 답답한 하루 이틀, iPhone에 중독된 채 하루가 천년같은 삼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iPhone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야호--” iPhone이 부활” 했다.

다시 작동되는 iPhone을 손에 쥐고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iPhone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됐다. 잃어 버릴 뻔 했던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소중한 인격체로 다가오는 그 느낌 속에서, 아름답게 나누며 주고받던 이메일과 카카오톡이 살아 움직이는 숨결 소리로 변화돼 오고, 세계를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큰 위력의 보물단지 iPhone의 존재를 새삼 느끼게 하는 삼일간 말이다.

2012년 아기 예수의 탄생 즈음에 일어난 “iPhone 사망과 부활”은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체험해 보라는 신호로 해석해 보고 싶다.

김계숙 권사/ 김문소 장로

기도: 죽은 줄 알았던 “iPhone의 부활”을 통해 더욱 값진 부활과 승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부활송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 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시인 구상



나의 묵상과 기도

기도:

나의 묵상과 기도

.....

기도:



* 2013년도 사순절 묵상집의 발간을 위하여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교우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2014년도 사순절 묵상집에 원고를 심기 원하시는 분은 kcbweb@hot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 (www.kcboston.org) “기도와 묵상”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